

씨앗 구조 본뜬 3차원 전자소자 세계 최초 개발

[2021-09-24 16:21:31]

국내 연구진이 씨앗 구조를 본뜬 새로운 개념의 3차원 전자 소자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송실대 김봉훈 교수팀은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씨앗이 바람을 타고 들판에 퍼지는 원리를 이용해 초소형 크기의 3차원 전자 소자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소자를 이용하면 무동력 비행체를 수백 μm (마이크로미터)까지 줄일 수 있어 미세먼지 정밀 측정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혜영 (hwe@ytn.co.kr)

- Copyright © YTN scienc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